

---

권두언

## 대전 EXPO와 기독교적 관점

Quo vadis, artis praecepta?

전광식

### I.

고대 회랍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thchnē*와 *epistēmē*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인간의 수족(手足)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후자는 인간의 두뇌가 하는 행위인데, 그들은 이 후자에게서 인간 속에 있는 신적인 성질을 보았던 것이다.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인간 행위는 그 후 로마인들에게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고유성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이런 인간을 *homo*라 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homo faber*, 후자에 해당하는 것을 *homo sapiens*라고 함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규정짓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테크놀로지(*artis praecepta, technology*)라는 것 가운데 합일되어 나타

나고 있음을 본다.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두뇌적 행위와 수족적 행위가 극명하게 종합되어 있는 것이다.

## II.

‘테크놀로지의 축제(祝祭)’라고 할 수 있는 EXPO가 지난 여름과 가을에 대전에서 열렸다. 하루 평균 10만 명 가량의 관람객이 몰려와 연 관람객 수가 천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EXPO 기간인 지난 8월에 나는 한국 창조과학회가 주관하는 창조과학 강습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EXPO가 개최된 장소 바로 옆에서 열린 강습회에서 강의를 마친 나는 EXPO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강습회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전시장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들이 저 현대 과학의 위용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까?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참가하였는데, 저들은 또 저 바벨탑과 같이 웅위한 첨단 테크놀로지의 탑 밑에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일까?’

그 다음 주 교회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EXPO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었느냐고 질문을 던져 보았다. 약간은 익살스럽게 기다리고 줄 서기가 힘들고 피곤한 것을 느꼈다고 말한 답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도우미가 예쁘다느니, 화장실이 좋다느니 하는 답도 있었고, 또 전시품들이 신기하고 특이하더라는 답도 있었다. 아직 철이 안든 아이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 관람객들도 전시장 안에서 이런 비본질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느꼈을는지 모르고, 또 간혹은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구나 하는 상식적인 반응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EXPO를 비종교적인 성격으로 보고 단체 관람 등을 하면서 즐기는 편이었고, 일부는 선교

적 의식이 발동하여 선교의 호기(好機)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한 가지 큰 위안이 된 것은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원동연 박사 소유의 청룡빌딩에서 노아 방주의 과학성과 성능을 보여 주고, 진화론을 세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홍보한 일이었다.

대전 EXPO에 전시된 첨단 과학의 웅장한 진열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어떤 포괄적 인상들을 주는지를 예상해 보고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들을 제시해 보자. 명시적으로 깨달았든지, 아니면 암시적으로 연상을 했든지 간에 나는 그 곳을 방문한 1천만 명의 관람객들이, 특히 그들이 과학과 인간, 그리고 종교를 생각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첫째, EXPO의 전시장에 진열된 테크놀로지의 열매들이 대단하고 과학 기술이 굉장하다는 반응이다. 과학이야말로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것이고 또 그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둘째, 그러한 과학 기술을 만든 과학자들이 대단하고, 인간의 두뇌는 놀랍다는 반응이다. 과연 인류는 저 석기시대의 돌 연장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룩했고, 그러므로 우주의 유일무이한 왕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이 위대한 과학의 업적 앞에 종교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원시적으로 보이느냐는 반응이다. 특히 인간이 노력하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초월적 신에게 기도하여 은혜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유약한 짓이냐는 것이다. 또 이 바벨탑의 위용 앞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무신론적 반응이다.

그리고 넷째, 이제 인류는 과학을 통한 테크노피아(technopia), 즉 유토피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이다. 기술 행위의 부작용으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있지만, 그것이 과학 기술이 다시금 해결해 주어서 결국 지상에 낙원이 다시 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상의 네 가지 반응은 EXPO를 볼 때 일반 관람객 혹은 EXPO 전시장의 관람객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과학 기술과 첨단 테크놀로지가 대단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입장은 일언이 폐지하면 과학을 신격화(神格化) 하는 입장이다. 과학 기술은 실로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우리 동양인에게는 '계수나무'나 '토끼'로 상징되는 경이로운 달 세계에 인간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고,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수만 리 떨어진 바다 건너 나라의 소식도 직접 듣고 알게 한 후 고도의 테크놀로지는 놀랄 만한 정확성을 지닌 미사일을 만들었고, 복잡한 고성능의 컴퓨터를 제조했다. 그리고 이제 고속 전철이 놓이면 천리길 서울도 부산에서 2시간에 주파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명해 놓고도 기술의 위력에 경악한다. 기술은 이제 가히 인간과 세상의 중심 문제요 주인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술 앞에 입 벌리고 경탄하면서, 결국 내심으로는 그것을 숭배화 하고 신격화 한다.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 과학 기술을 악마화하는 입장이 있다.

구세군의 초기 역사에는 예배시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북미의 극단적인 메노나이트파(Mennonite)는 경작(耕作)을 할 때에 경운기나 트랙터같은 문명의 이기(利器)들을 쓰지 않고 삽이나 곡괭이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극단적인 종교공동체에서 잘 보여지는 것으로 기술을 죄악시 하고 그것의 열매를 예배에는 물론 생활에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 기술을 악마화 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타락 사건 이후에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믿음의 계열인 아벨의 후예보다 범죄한 가인의 후예에서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실제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인 두발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시조임을 말한다.

이들은 기술을 범죄한 자손의 소산물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

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여겨 배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입장이 기술 종독자의 입장이라면 두 번째 입장은 기술 혐오자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두 입장의 반대편에 우리는 과학 기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세워볼 수 있다. 사실 *technē*와 *epistēmē*를 지녀 인간이 과학 기술을 만들게 된 근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실이 놓여 있다. 그 형상이 주는 지성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세워 두시고 또 감추어 두신 지혜의 부요함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과학 기술의 본래적 의미이다. 인간이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 본질상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한 방로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고 문화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타락으로 인해 그 본래적 의미와 목적이 그릇되게 변질되었듯이 과학 기술도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구속받은 자가 과학 기술의 창조적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그런 원리 위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과학 기술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기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튼 과학 기술은 그것이 신격화될 정도로 신성한 것도, 또한 악마화 될 정도로 최악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다른 영역, 즉 학문이나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과 같은 하나의 문화 영역이다.

얼마 전에 나온 「쥬라기 공원」을 보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랐다.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이 까마득하게 사라져간 원시적 과거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또 화면상으로나마 되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룡 재생에 이르는 소위 '과학적 과정'의 설명에 내심 환상적이라고 감탄을 한다. 그래서 생명공학이 잘 발달되면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희망적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여전히 근본적인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이 실험실에서 재생되고 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또 과학 기술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하는 일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꿰맞추는 일만 하는 것이다. 또 과학은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의 정서와 의지, 그의 영혼과 윤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쥬라기 공원」의 교훈이 무엇이나? 그 시작은 과학 기술의 대단한 능력과 위대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끝은 과학이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또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V.

EXPO 전시장에서 보인 관람객의 두 번째 입장은 그런 과학 기술을 만든 인간이 대단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대단하다. 특별 은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것은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도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역사 속에서는 물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역사에서도 인간이 이룩한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문화적 업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곧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는 들의 가축이나 산의 짐승들보다 훨씬 연약하다. 골격이나 사지가 약함은 물론 간이나 위도 약하여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거친 음식은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고장도 잘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조변석개하며, 우리의 의지도 연약하고, 나아가 우리의 지성도 Luther가 제대로 말한 것처럼 '창기'처럼 변덕이 심하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다가도, 곧 비와 바람에도 이기지 못하며

뜻밖의 재난을 막을 수도 없고, 나아가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공기만 없어도, 불만 없어도 지상의 인간은 쟁그리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 이관대’라고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 기술의 신격화는 물론 인간의 신격화도 배격해야 한다.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여러 영역을 절대화 하게 되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절대화 하고, 돈을 절대화하기도 하고 과학, 육체, 세상을 절대화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절대화 하기도한다. ‘하나님을 절대화 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지상의 그 무엇을 절대화 한다’고 기독교 철학은 말한다. 지난 역사와 현 역사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져 그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 자신을 신격화 하는 많은 이들을 본다. 바벨탑을 쌓은 저 고대 시날의 사람들이나 느부갓네살, 또한 스스로 “주(主)라고 부른 로마의 황제들과 무오(無誤)의 능력을 주장하는 교황들, 히틀러와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이단 나부래기의 교주들이다. 이들 모두는 저 대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이 주인이나 왕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달나라를 거쳐 별나라까지 간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으로만 머문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로서 유한성과 제한성을 지니는 것이다.

## VI.

EXPO 관람객의 세 번째 반응은 이 대단한 과학 기술 앞에 종교가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기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미신적인 것 같으냐는 반응이다.

과학과 종교를 비교해 볼 때 전자는 이 세상을 전체적이고 거대한 질

서로 보는 대신에 모든 것을 분할하고 조각 내어 세분된 것으로 보고, 후자는 인간이 외부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내부의 존재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이 세계 밖에 초월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과 또 이 역사의 피안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사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처럼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과학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산업의 고도화, 정보의 첨단화를 인간의 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풍요는 꼭 다른 문제점을 가져다 주고 또 인간에게 피곤을 안겨다 준다. 굳이 에머슨(R. W. Emerson)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과학 기술로 인해 사회가 발달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반대편에서 볼 때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을 얻더라도 인간성과 운동은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은 인간의 육신이나 외부 세계만 다루지, 그 영혼은 다루지 못한다. 과학 기술은 인생에게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주지 못하고, 또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물론 이 세계의 뜻과 우주의 의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인간이 로켓트를 쏘아 올려 달나라에 착륙해도 그 달과 별들, 이 광활한 우주 창조의 신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미국의 우주인들은 저 달에서 성경을 읽고 그 창조주에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양심과 도덕이 없이 철학과 역사, 예술과 문학이 없이, 아니 참 종교가 없이는 인류가 달에 가더라도 발견하는 것은 뿌우연 먼지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을 보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보다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성을 가졌고 또 과학은 종교를 대신하여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물질적으로 진보하면 할수록 역으로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



이다.

## VII.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과학이 이제 인류를 지상의 유토피아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의식이다. Expo 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아마 이런 의식을 알게 모르게 지닐 것이다. 이런 낙관론적인 진보적 역사관은 사실 일세기 전에 이미 유럽 사회에도 있었다. 당시 과학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여 산업혁명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또 Hegel의 정신 발전사(精神發展史)로서의 역사관이나 Darwin의 진화론 등은 Condorcet같은 이들의 진보적 역사관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산산히 깨어진 꿈’이 되고 말았다. 역사 낙관론의 거짓 예언자들은 외적인 발전과 번영만 보았지 집단적 내지 개인적인 인간간의 분리와 인간 속의 비윤리성과 죄성을 간과해 버렸던 것이다. 유토피아(Utopia)는 결코 기술의 진보와 물질적 번영만으로는 오지 않는 것이다. 집단이나 개인 속에 욕망과 죄성이 있으면 그것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또는 외적 혹은 내적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Karl Popper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이라는 책 내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비교 비난한 Platon이나 Hegel, 그리고 Marx처럼 과학자들도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 과학자라면 거짓된 예언을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과학에 대한 연구만 열심히 하면서 그 동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는 자세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작금의 기술 발전이 인류를 행복한 지상 낙원으로 이끈다는 감미로운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셈이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상 유토피아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상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낙원이었던 에덴동산을 잃게 하고 그것에 다시는 인류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다시는 이 역사의 차원과 지상 영역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에덴과 같은 지상 낙원을 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둘째,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그 종말로 가는 과정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 대적과 전쟁, 기근과 지진, 미혹과 불법,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세상과 이 역사의 저 피안에 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다.

셋째,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인 죄성이 남아 있어서 비록 외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진보는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상호간에 시기와 다툼, 온갖 욕망과 분쟁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는 오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도 분리시켜 자연은 인간의 통제에 단순히 순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몸짓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하고 많은 집단들이 추구하였지만, 특히 서방의 자본주의와 동방의 공산주의도 꿈꾸었지만, 유토피아는 그 문자의 뜻 그대로 ‘아무 곳에도 없는 곳(οὐ τοπος)’이다. 참 유토피아는 역사의 피안에 올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천국이며 ‘새하늘과 새땅’이다. 지상의 역사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과학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다. 대전 Expo 주제는 ‘그 날은’이다. 주제를 부른 이들은 ‘그 날은 찾아오리라’고 외쳤고, 그들이 뜻한 ‘그 날’은 ‘잘 사는 나라’,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 그리고 ‘온 인류가 땅과 바다뿐 아니라 하늘도 정복하는 때’이다. 이 노래는 말하자면 인간 예찬과 지상 유토피아를

구가하는 노래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벧후 3:12)”라고 했고, 또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마 24:19)”라고 했다.

성경의 ‘그 날’은 최후 환란의 때, 심판의 때이다. 그 때는 지상에 찾아오는 유토피아의 때가 아니라, 역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때이다.

## VII.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의 인간들이 개인과 집단에서 지니고 있는 이상을 한 가지씩만 말하라면 개별적으로는 돈에 대한 이상과 집단적으로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이상을 들고 싶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데 필요한 돈만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숭배하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과학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명마저도 그것에 알게 모르게 의존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과학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학화와 정보화를 그저 향유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을 보이며 소위 과학기술주의의 이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이런 이상화는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지식으로 넓은 탑을 쌓고 도시를 세워 하나님의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 옛날 시날 평지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다. 「쥘라기 공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과학이 지나치게 절대화 되어 그것이 인간의 삶에 유익과 안락함을 주는 데서 머물지 않고 자연을 개조하고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할 때 과학은 도리어 공포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 때 과학은 천사가 아니요 악마인 것이다. 과학이 한편으로 이기적 목적과 상업주의적 의도로 욕망의 충족에 쓰일 때 그것은 결국 반인간적(反人間的)이 되고, 반인도적(反人道的)이 될 뿐

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인류에게 공포의 무기로 나타날 뿐인 것이다. 우리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써야지, 그것을 절대화 하거나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실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듯해도 그가 만든 것 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다.

또 인간이 무엇을 만들든지 그는 역사를 단 일 초도 주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흐름은 그의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 인간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성과를 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긴 책머리의 글을 우선 이번 호를 위해 글을 써주신 여러 동역자님들, 김정한, 김남득, 김영걸, 양승훈, 박인용, 박진환, 정충영 제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선배인 베드로 사도의 글을 인용하므로 매듭짓고자 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24-25)

1993년 초겨울에  
편집인 전 광 식